

치과의사들의 아름다운 회향

바라밀현장

은평구치과의사협회 '무료틀니시술'

"아이구, 할머니 입 안이 이런데 밥은 어떻게 먹었어. 비빔 언덕이 있어야 나무를 심죠. 잇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틀니를 맞추려고 입 안을 살피던 치과의사 최태식(42)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오랫동안 이가 없으면 잇몸이 몸속에 흡수되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틀니를 해 놓는 일이 몇 배 어려워진다.

들이 3년째 은평노인복지관에서 매주 무료틀니시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2년을 기다린 끝에 기회를 얻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뜬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보통 치과에서 위아래 틀니 한 벌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40만원.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밥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큰 목돈이다. 자식이 있는 노인들도 비용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을 하는데, 단칸방에 의지해 사는 독거노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처지가 어려운 노인들의 말 못할 아픔을 알고 고통을 덜어주는 숨은 선행자들이



◇"아, 할머니, 더 크게 입을 벌려 보세요." 서울 은평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틀니를 해주는 은평구치과의사협회 회원들.

노인들을 보고, 삼천사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인덕원에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무료틀니시술 봉사를 시작했다.

틀니를 맞추는 일은 특성상 한 달에 한 명 이상은 어렵다. 그러나 남 원장은 특별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매주, 치아없이 사는 노인들의 아픔을 해결해 왔다. 2000년 7월 은평노인복지관이 개원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남 원장은 자신의 일을 절대로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남 원장의 선행은 할머니 보살들

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의 일을 알게 된 은평구치과의사협회 후배들은 지난해 남 원장을 돕자는 뜻을 모으고 올 1월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무료 틀니시술 일을 함께 거드는 황영숙 은평노인복지관 재가팀장은 "무료틀니 시술 한건에만 80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봉사를 부탁할 때는 늘 조심스럽다"며 "자신의 손해를 아까와 하지 않는 이런 분들 때문에 노인들의 여생이 한결 행복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3년째 매주 독거노인들에 무료로 틀니봉사 선행담 입으로 전해져 참여자 꾸준히 늘어

"40년 전 풍치를 앓았을 때 이가 몽땅 빠져버렸어. 의사 선생. 어떻게 좀 해 줘.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 할머니의 눈빛은 간절하다 못해 애처롭다. 그렇다. 이 날을 위해 몇 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못 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안 올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 안 된다. 말을 못한다.

8일 서울 은평노인복지관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을 벌리면서도 연신 싱글벙글이다. 서울 은평구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은평구 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이자. 남한우 원장(64)이 2000년 복지관 개원과 함께 이 일을 주도하고 있고 양종렬(43), 최태식(42), 이석초(41), 윤승순(42) 등 치과의사들이 최근 합류했다

남한우 원장이 무료틀니 시술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6년 전. 등산을 좋아하는 남 원장은 주말마다 북한산에 가는데 유일한 낙이었다. 남원장은 그때마다 삼천사를 참배했다. 그런데 이가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남한우 원장 "혜택받은만큼 되돌려줘야"

"의료봉사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치과의사인 만큼 그것을 다시 사회로 되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6년 전 인덕원에서 무료틀니 시술 봉사를 시작, 은평노인복지관 틀니시술 현장을 이끌고 있는 남한우(64) 원장. 은평구치과의사협회 의사들의 존경을 받는 남 원장은 밀행제일(密行第一) 라출라 존자를 본받아 은밀히 이타행을 실천해 왔다.

남 원장의 봉사철학은 단순하다. 어차피 죽으면 이 몸과 함께 없어질 기술이기에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남을 위해 '저 먹자'는 생각에서 남몰래 선행에 나섰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재물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으로,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남을 돕는 게 '보시' 아니냐는 것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남 원장은 "후배 의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성향 선사 (L)

화두 참구하며 이타행 실천

"보살의 서원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디든지 가라고 요청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라도 탐라가 중생을 구제 하라고 서원을 일깨웁니다. 그 서원에 따라 나의 파트너와 딸들과 함께 병원에서 일할 때나 무엇을 하든 나는 그것을 수행으로 여깁니다."

화계사 조실 승산스님(조계종 원로 의원의 초기 미국인 제자이자 조계종 재미홍법 관음선원(Kwan Um School of Zen, 원장 승산)의 부원장인 성향(미국명 Barbara Rhodes) 선사, 미국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인 선사(Zen Master)로 인가(1992년)받은 여성 중의 한 명인 그녀는 선사이자 간호사로서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을 겸한 독특한 선 수행자다.

1972년부터 관음선원 설립자인 승산스님으로부터 참선을 배운 성향 선사는 1977년 지도법사(Dharma Teacher)로 임명됐다. 1992년 10월부터는 미국 관음선원의 부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플로리다, 시카고, 콜라라도, 코네티컷 등지의 선센터와 선모임의 지도법사도 겸임하고 있다. 1969년부터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남은 자기 자신을 믿고 강해질 것을 원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책임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어요. 선(禪)에서 자신을 믿고 자신이 누군가를 찾는 것은, 무아(無我)를 확인하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니다. 그리고 진실로 무명(無明)을 깨쳤다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남을 돕는 것이 명백해질 거예요." 성향 선사의 자비실천은 '이 뱃고' 화두를 쟁기는 수행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숨쉬고 있는 매 순간 '이 뱃고'를 찾는 참선으로 '어디든'을 찾는 주인이 되는 隨處作主를 실현하는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란 의문은 당시를 매순간 진실로 이끎니다. '이 뱃고'를



◇성향선사

승산스님에게 선사로

인가받은 최초 여성성

의 가정과 병원 등에서 맡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를 펼치고 있는 간호사이기도 한 그녀는 선사로서 보기도 드문 수행이력을 보이고 있다.

선사이자, 어머니, 간호사로서 1인 3역을 하고 있는 그녀는 승산스님으로부터 참선과 함께 관음보살의 자비와 지장보살의 원력을 배웠다. 성향 선사는 임종간호를 통해 수도 없이 힘겨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시련을 극복해 왔다. 그녀의 능숙한 해결을 기다리는 많은 곳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지도하며 그녀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기꺼이 가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가 지옥에서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성향 선사는,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 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승산 선사는 제자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고만 하지 않았죠. 큰스

란 화두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 상태를 갖게 하죠. 지혜가 개발될수록 지족(知足)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은 당신이 어디로 다음 걸음을 떼어야 할지 알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순간순간, 당신이 직면하는 그 무엇에서 배워야 해요."

화두 참구가 보살행의 실천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풀이 아님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그 적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계속)

김재경 기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꼭 불교인만 스승으로 삼고 벗으로 삼으라는 법은 없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마음을 깨우칠 수 있다면 그가 곧 스승이 되고 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강원도 봉평에서 참으로 친근해지고픈 목사님 한 분을 만났다. 잘 아는 사람이 하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하시길래 종교관계를 떠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 만나 빈 것이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의 진실한 내면을 엿볼 수

있었고, 세상에 내놓을 큰 일은 아니더라도 그 명성이 깨꿀할 수 밖에 없는 행을 짓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욕심이 없이 오직 사랑을 실천한다는 주변사람의 말대로 지역사회와 그 곳을 찾는

마음비추기

사람들을 위해서 갖가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이였다. 이 목사님은 여느 목사들과는 달리 교회중심의 선교나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이였다. 이 분이 운영하는 교회는 설립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 신자도 별반 없이는 가난한 교회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본래 교회를 설립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농촌 학교 사역을 하다가 고향인 봉평에

행위가 거룩하면 스승 될 수 있어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 왔다고 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유치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였다. 목사님이

고향인 봉평을 찾은 당시 교육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녀를 둔 사람들이 타지로 나가게 되었고, 마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 때 한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들도 아이를 위해서 고

향을 떠나야 되겠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 젊은 부부의 자식 하나를 위해 선교 목적으로서가 아닌, 유치원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이

사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무려 세 시간의 거리를 승합차를 몰고 날마다 그 아이의 집까지 오고가고를 3년 동안 하다보니 새 차가 급세 고물이 되더라는 것이다. 참된 교회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참된 선교는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에 있는 것이지, 교회 나오라고 외치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다. 겸손하고 헌신적이며 투명한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관세음보살이 따로 없고 지장보살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연(유마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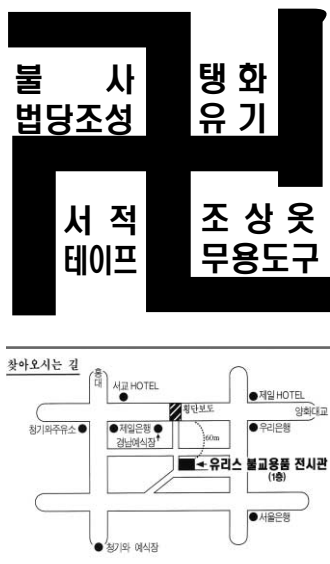
개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원

◆ 유리스에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귀의삼보 하옵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제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흥대전철역 인근에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3년 2월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대표 이 효 실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전화 : 02-336-2165 팩스 : 02-336-216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 삼정빌딩 1층



틱마승 애원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개달음의 茶道 제 21기 수련생 모집안내

다도 승가의 오랜 전통 선문화요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행위 하나하나가 수행이며 개달음의 세계로 향하는 길입니다 禪茶道를 함께 공부할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I. 교육내용

점전의 기본, 떡의 작법, 로 · 풍로의 점전, 박자 · 농가의 점전, 탄수전, 남방록, 선다륙, 헌다, 선다외

II. 교육기간

· 교양반 : 2년 · 연구반 : 4년, 전문반 : 10년

III. 주소 및 문의 전화

경남 의령군 부림면 단원리 271 전화 055)574-9098, 019)578-1282

韓國 抹茶道 千心家 禪茶園